

# 전주매일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음 8월 8일) 제23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교류단이 신북방 국제지방외교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보그다넨코 연해주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북도와 연해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협력발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같은 날 전북도 교류단은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 송하진 지사가 직접 쓴 글씨로 민족학교 현판을 제작해 전달했다.

## 태풍 링링 도내 영향 강풍·호우 대비 필요

2019년 곤파스와 유사  
최용범 행정부지사  
"안전사고 예방" 당부

제13호 태풍 '링링'이 6일 밤부터 도내 전역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태풍진로를 예의 주시하며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중형의 강한 태풍으로 9월 5일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북방향으로 19km/h 속도로 이동 중이며 우리 도에 영향을 줄 때에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이번 태풍이 2010년 곤파스와 매우 유사하며 더 위험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곤파스는 당시 도내에도 288명의 이재민과 4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에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5일 태풍 사전대비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을 긴급히 열었다. 최 부지사는 태풍경로가 과거 우리 도내에도 피해를 입혔던 2010년 곤파스 태풍과 유사하여 강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관 분야별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풍수해 행동매뉴얼에 따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단행령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해안가의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해일 피해 대비와 주민 사전대피에 철저를 기하고, 해안가 배수갑문 관리를 철저히 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항·포구에 정박된 어선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모든 소형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태풍 '링링'의 진행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해 태풍 영향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건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을 강화하며,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와 강풍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시설 및 축사, 수산양식시설 등에 대한 사전 결박과 꼼꼼한 안전조치도 지도한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 연해주, 국제교류망 확장

###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교류단, 러시아 공식 방문

#### 농업·문화예술·관광 등 교류의향서 체결

#### 고려인 민족학교에 송 지사 직접 쓴 현판 전달

전북도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 정부의 외교전략에 발맞춰 신북방정책의 중심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 협약을 맺는 등 국제교류망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교류단은 4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해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전북도는 특히 올해 초 국제화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매우호지역 확대 추진과 교류 다변화를 모색해 온 상황이라서 이번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는 향후 양 지역간 교류사업 발굴 등 본격적인 지방외교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북 교류단은 5일 송하진 도지사와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보그다넨코 콘스탄틴 부지사가 공식 면담을 갖고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지역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협의를 위한 협약들의 실행 및 협력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합의한다는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 교류연락을 위해 양 지역에 전담기관(전북/국제협력과, 연해주/국제협력과)을 지정했다.

전북 교류단은 이날 러시아 연방정부 부가 극동개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가, 양국간 외교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북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합의한다는 취해 교류지역과의 공동 성장 협력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나갈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 올가 코제라츠카야 부시장과 간담을 갖고 전주 세계소리축제-블라디보스토크 축제에 상호 공연과 파견 및 한스타일을 연계한 문화강좌 등 상호 문화연수 추진을 제안하고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북 교류단은 이날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연해주 제2의도시인 우스리스크에서 본격적인 첫 문화교류 사업을 펼쳤다.

도 교류단은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 송하진 지사가 직접 쓴 글씨로 민족학교 현판을 제작해 전달했다.

교류단은 현판식을 가진 뒤 민족학

교 내 1층 다목적 홀 내부를 전라북도도의 전통한지로 꾸며 민족학교에서 한글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를 통해 고려인 민족학교에 한국과 전북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려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의 조부와 선친께서도 일제강점기 사발과 찜찌개명을 거부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신 바 있어 이곳 방문은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본격화

시,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앞 사유지에 136여억원 투입 2022년 완공 목표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부권 종합복지관 건립을 본격화한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앞 사유지에 약 136억원을 투입해 복지허브역할을 수행할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지하층, 지상 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노인복지관 △어르신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청소년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부지가 확정된 만큼 내년 도 시설계획용역을 시작으로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서부권 종합복지관 부지선정을 위해 사유지 3곳을 대

으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해왔으며,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인구 및 지역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도보 이동 접근성 △편의시설 이용 △입지 선호도 등을 고려해 효자동 롯데마트 앞 사유지를 대상으로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진안로컬푸드**

眞 명품특선 '진'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별하세요.

NAVER 진안로컬푸드

50,000원 이상 무료배송

진안로컬푸드 호성점 063-253-7004  
전북 전주 덕진구 동부대로 930

진안고원 홍삼한우 통심세트    진안고원홍삼한우 혼합세트    진안고원홍삼한우 갈비세트

진안인삼 선물세트    군수품질인증 진안홍삼    맛이일품 진안사과

즐거은 추석 선물대거시